

당신들은 우리의 의료 영웅입니다!

“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듭니다”

5년 전,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
환자들과 함께 병원에 격리된 채 끝까지 곁을 지켰던
한 간호사의 말이,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

“더 악착같이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.
제 환자에게는 메르스 못 오게...”

지금,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
의료진들의 각오도 이와 다름없을 것입니다.

함께하기 제일 어려운 그 절박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돌보는
의료진, 구급대원, 또 수많은 의료 현장 스태프
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
의사라는 단어에서 "사(師)"가 스승을 의미하는 이유를
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깨달습니다.

하루빨리 당신의 얼굴에도 대한민국의 얼굴에도
웃음이 찾아오기를
간절히 기원합니다.
뜨겁게 응원합니다!